

# ‘오방색’에 담긴 자연과 인간 ‘공존의 미학’

오승윤 화백 회고전…내년 1월18일까지 ACC 복합전시 6관

초기 회화 등 시기별 대표작 30점·최초 공개 판화 7점 전시  
한국적 색채·조형미로 풀어낸 생명의 근원과 인간의 존엄



오승윤 화백

‘자연을 읽고, 색으로 사유하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평생의 주제로 삼았던 고 오승윤 화백의 작업세계를 총망라하는 대규모 회고전이 진행 중이다.

내년 1월18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복합전시6관에서 열리는 ‘오승윤·풍수의 색, 생명의 선율’ 전시다.

이번 전시는 개막일인 10일에 맞춰 언론에 사전 공개된 전시투어를 통해 먼저 소개됐다. 정식 개막에 앞서 전시장을 찾은 자리에서는 작품 설명과 함께 오 화백의 작업을 따라 전시 전반을 둘러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오 화백의 초기 구상회화부터 오방색과 풍수 연작에 이르기까지, 회화 30점과 판화 7점 등 총 37점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였다.

입구를 지나쳐 가장 먼저 마주하는 그림은 오 화백의 구상회화 ‘대한’이다. 1973년 그려진 이 작품은 인물과 공간을 치밀하게 구성한 화면으로, 이후 전개될 추상적·상징적 회화로 나아가기 전 오 화백의 조형 감각과 색채 감수성을 보여주는 작업으로 읽힌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작자이자 1996년 모나코 국제현대미술전 특별상 수상작인 ‘회상’은 세계에 한국적인 미감을 알린 그림으로, 1980년대까지 구상회화를 이어가던 오 화백의 화풍이 구상에서 상징적 구성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을 드러낸다.

이후 오 화백의 작업은 본격적으로 풍수 그리고 오방색의 세계로 들어선다. 물고기와 애생화, 반복되는 피 형태의 도상들이 화면 곳곳에 등장한다. 전국의 산천을 답사하며 찾은 풍경은 더 이상 재현의 대상이 아니라, 색과 도상으로 재구



‘물고기’



‘금강산’

성된 상징적 화면으로 나타난다.

여인의 형상 역시 그의 회화에서 중요한 축이다. 화면 속 여인은 특정 인물이 아닌 생명의 근원과 인간의 존엄을 상징하는 존재다.

불교적 수인(손의 모양)과 상징을 바탕으로 한 인물상은 1990년대에는 동양적인 비례로, 2000년대에는 서구적인 비례로 변화하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탐색하는 시도로 이어진다.

전시장 통로를 따라서는 오 화백의 초기 작업

인 흙백 판화 7점이 최초로 공개됐다. 금강산, 목련, 초가 등 자연과 민족적인 풍경을 표현한 작품들이다. 화려한 색으로 세계를 구축해온 작가의 작업 가운데서도 드물게 남아있는 흙백 작업들이라 더욱 눈길을 끌었다.

전시장 후반부에는 무등산, 금강산, 백두산, 독도를 그린 작품들이 걸렸다. 그중 ‘풍수 무등산’ 그림 속 나비와 구름, 물고기, 애생화 등은 서로 겹치지 않고 화면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모양새다. 이는 인간이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화백의 사유가 담겨있다.

벽면을 한가득 채운 600호 크기의 대작 ‘바람

과 물의 역사’는 2004년 광주비엔날레에 출품한 작품이기도 하다. 화면 중앙의 여인은 인간의 존엄을, 위 아래로 배치된 불교적 도상은 순수와 조화를 의미한다.

작품 곳곳에 등장하는 반복적인 불교적 도상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오 화백이 오랜 시간 연구해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자연과 인간, 생명의 질서를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엮어낸다.

이날 전시투어에는 오승윤·풍수의 색, 생명의 선율’ 전시장을 함께했다. 부인인 이상실 여사와 딸 오수경 씨, 손녀 박지윤씨가 전시장을 동행하며 작품 앞에서 작가의 작업과 생각을 함께 되짚는 시간을 가졌다.

예일대를 졸업한 뒤 현재 대학원에서 불교미술 전공으로 박사 과정 중이라는 손녀 지윤씨는 “할아버지는 불교적 색채를 단순히 사용한 것이 아니라 수인 하나까지 의미를 연구해 회화에 맞게 풀어낸 분”이라며 “불교 예술이 다양한 외래 영향 속에서 전개돼 온 맥락을 떠올리면, 오방색이라는 한국적 색채로 이를 해석하려 한 지점이 인상적으로 다가온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 인공지능 시선으로 바라본 새로운 미래

ACC재단·서울 중랑문화재단 공동 기획 ‘뉴-미디어의 재해-석’ 展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지난 10월 서울 중랑아트센터에서 ‘뉴-미디어의 재해-석’ 전시를 개막했다.

서울 중랑문화재단과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전시는 내년 7월4일까지 8개 월동안 진행된다.

‘뉴-미디어의 재해-석’은 ‘인공지능(AI)의 시선으로 바라본 역사·환경·자연·문화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창·제작 미디어아트 작품들로 구성한 전시다.

전시에서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감각이 교차하는 네 점의 주요 작품을 선보인다.

디지털 세로토닌의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는 인공지능 연산방식을 통해 지구의 진화와 인간·자연의 관계를 시



아키베스作 ‘ELECTRINIC DREAMS’

각화한 작품이다. 작은 생명체의 선택이 지구 환경을 바꿨듯이 오늘날 우리의 행동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아키베스의 ‘일렉트릭 드림’은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변주되는 쌍방향 설치작품이다. 이 작품은 인간과 기계의 감정 교류를 시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이어 슬릿스코프 작가의 ‘루덴스토피아’는 인공지능이 이해한 현실과 가상의 공간을 결합해 새로운 유혹적 세계를 구성하며, 공간과 존재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또 디지털 세로토닌의 ‘뉴 월드? II’는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데이터를 파도의 형상으로 시각화해 디지털

자산의 이면에 존재하는 에너지 소비와 환경문제를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한편 이번 전시는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랑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 ‘줄탁동시’…서로를 깨우며 나아가는 몸짓

전남대박물관, 바다 작가 초대전…내년 2월26일까지

줄탁동시. 병아리가 안에서 울고 어미닭이 이에 맞춰 밖에서 깨질을 깨주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가지가 동시에 행해질 때 비로소 일이 잘 이뤄진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삶의 아픔과 빛, 절망과 희망 등 두 가지 것이 공존하는 순간이 조형물로 관람객들을 만난다.

전남대학교박물관(관장 김철우)은 내년 2월26일까지 대학본부 1층 도비에서 바다 작가 초대전 ‘줄탁동시(啐啄同時)’를 진행한다.

바다 작가는 자연과 인간이 마주한 순간을 나무와 돌이라는 원초적 재료에 새겨 넣으며, 그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삶의 숨결을 포착하고 형상화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느티나무, 은행나

무, 가죽나무, 화강석, 대리석 등 다양한 재료에 생의 흔적을 담은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자연의 숨결 위로 깨어남과 희망, 고통과 연대의 서사가 조용히 흐르며 관람객을 깊은 사유의 공간으로 이끈다.

오래 잠들어 있던 생명성이 깨질을 깨듯 드러나는 형상들, 시대의 상처를 품은 존재들이 서로를 깨우며 나아가는 이미지들이 서정적이면서도 힘 있는 조형미로 표현된다.

작가는 나뭇결의 파동, 돌이 품어온 시간의 무게를 깊이 들여다보며, 그 안에서 깨어나려는 존재의 몸짓을 조형적 언어로 확장한다.

이러한 성찰의 과정은 작가 자신의 내면과 세상에 대한 응답으로 작품 속에 구현된다.



‘잠기다’

김철우 박물관장은 “일상에서 놓쳤던 삶의 숨결 속 자연과 인간, 내면과 외부가 상응하며 나아가는 ‘줄탁동시’의 순간을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 당, 당, 당 때문에 고생하고 계십니까?

- 효능·효과는 묻지마세요.
  - 식전 2봉지 드시고 체크해보세요.
  - 당일 즉석 떨어집니다.
  - 신비의 약초 천연식품 재료로 제조하였습니다.
- [식약처허가 제2019-05191645]



1박스-50,000원

## 달빛고향 흑염소 진액

달빛고향 흑염소 진액은 흑염소부터 다릅니다!

- 100% 국산 자연방목 흑염소 진액 사용
- 식물성 재료 원료 배합
-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제조공법
- 다년간의 노하우를 담아 깊고 깔끔한 맛

1박스-60,000원

## 내안에 헝기를 채우다 이제 뿌리지 말고 드세요!

천연 해조류에서 추출한 수용성 규소를 기반으로 체내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제거합니다



1박스-120,000원

냄새 굿바이를 음용하시면 몸속 냄새의 근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냄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추천!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대화 중 입냄새, 거드랑이, 발 냄새가 심한 분
- 갑자기 새어나오는 요실금 증상으로 소변냄새 걱정이신 분
- 매일 아침, 속편하고 활기찬 하루의 시작을 원하시는 분
- 대소변 냄새 감소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원하는 곳 (요양원 등)

“본 제품의 효과는 개인의 체질, 사용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텔, 식당, 호프집, 요양원, 유흥주점

살포시 10분안에 냄새 제거!

냄새 악취 완전 제거 확실합니다.

2개월 분-70,000원

## 푸른도깨비 친환경 살균제 특장점

적 용 대 상	고추·양파·배추·무·딸기·포도·대파·모든 농산물
살 균 力	임소계 제품보다 250%이상의 산화력과 500%이상의 소독 능력
살균지속력	일반적인 살균력을 일시적인데 비해 7일이상 지속적인 살균력 유지
안 정 성	오존 및 차이염소·산나트륨(락스)에서 발행하는 소독 부산물이 없음
환경친화력	빛에 의해 쉽고 빠르게 분해되므로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피해가 없음
악취 제거	악취 발생 곰팡이류와 밟고 세균 등 분자 파괴로 악취 원인의 근본적 제거
병충해예방	식물로서 단자병 예방
1 유익균에 우호	유익균질과 선택적으로 반응으로 상대적으로 유익균에 우호적
2 중금속 제거	작업현장 수질의 가중 “중금속을 빠르게 산화”시켜 정화함
3 가스 제거	환경오염의 원인물질인 “황화수소 및 암모니아 등을 산화”시켜 제거
4 악취 균원 제거	단순 냄새 제거를 벗어나 일인 물질의 악취를 균원적으로 제거
5 살균의 지속성	박테리아나 균이 재 번식하는 현상을 억제하고 “내성이 생기지 않음”
6 기생충 억제	각종 “기생충들의 성장을 저하”시키고 기피제이므로 억제가 가능함
7 고도의 살균력	타 살균제에 비해 “2.5배 이상 강한 살균력과 5배 이상의 소독력”
8 무독성	타 살균제와는 달리 클로로아민·클로로페놀 등 발암물질 생성안됨
9 신선도 유지	수확시 침자·살포하는 것으로 수확물의 신선도를 오래도록 지속 가능

총판 및 취급점 모집

대양식품(주)

080-374-5046